

일제강점기 유치원 보모와 유년문학의 성장

박인경*

국문초록

1920년대부터 유치원에서는 유년의 연령을 '3세에서 7세로'로 규정짓고, 왕성한 발전을 이루지만, 아동문학에서는 유년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년문학들이 충분하지 못하였기에, 유치원 보모들은 스스로 기존의 유년문학 작품을 번역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유치원 보모들의 문학 작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신문이나 잡지에 유치원 보모의 신분을 밝히고 게재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29년 『조선일보』의 「1人 1話 유치원동화」와 1940년 『소년』의 「유치원동화 특집」 그리고 1941년 『아이생활』의 「유치원동화 특집」이 있으며, 특징들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초반에는 번역과 재화 형식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였기에 기존의 아동문학가들 작품과의 연관성이 높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점차 보모들만의 작품이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문학성을 지닌 표현적 기교보다는 동정심이나 효심과 관련된 교훈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전래동화 소재를 활용하여 우리의 민족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유년이라는 대상을 인식하여 잔인한 내용들은 순화하여 표현하였으며, 글자를 모르는 유년들을 위해 들려주는 방식의 구연 서술 방식을 사용하였다.

위 특징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년 문학가로서 성장하는 보모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유년문학도 함께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유치원 보모, 유년문학, 보모 작가군

* 인하대학교 inkjung33@naver.com.

목차

1. 문제제기	2) 『소년』의 「유치원동화 특집」
2. 유치원 부모 양성교육과 유년문학과와의 만남	3) 『아이생활』의 「유치원동화 특집」
3. 유치원 부모들의 유년문학 작가로서의 성장	4. 맺음말 - 유치원 부모들을 통한 유년문학의 성장
1) 『조선일보』의 「1人 1話 유치원동화」	

1. 문제제기

1923년 방정환의 『어린이』지 창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어린이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문학은 성장하게 되었다. 이 당시 어린이는 소년과 유년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¹ 주 대상은 소년들이었다.² 1920년대 유년에 대한 인식은 몇몇의 아동문학 작가와 평론가들의 답론을 통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³ 전반적으로 유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

1 1920년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유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소년의 의미와 함께 ‘어린이’의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마유년운동」에 관한 기사(1924.05.30.)에서는 유년의 연령을 “칠세이상 십사세 이하”라고 명확하게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상이 유년인데 “강연이나 소학을 토론한다.”는 기사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유년은 지금의 청소년을 지칭하는 의미로 소년의 의미까지를 포함하며 청년과는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 저학년까지의 낮은 연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유년이 사용된 경우는 대부분이 유치원과 관련된 기사들이다.

2 「1924년~1927년 사이 『어린이』지에는 ‘어린이’ 독자들이 보내온 사진이 게재되었는데, 오늘날 초등 학생에 해당되는 ‘진짜’ 어린이(7~12세)는 8.8%에 불과하고 중학생(13~15세)과 고등학생(16~18세)에 해당되는 틀에이저가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9세 이상의 성인 독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 역사, 2003, 216면.

3 홍은성(홍순준)은 “유년의 연령을 5세에서 10세까지로 정해 소년과 구분 지어 유년 잡지나 그림책 발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광수는 「새예술」 게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세-네 살 말 배우는 아기네들(유년)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창작하고자 주장했다. 또한 김우철(호인)은 아동의 연령대를幼年(만4~7세), 兒童(만8~13세), 少年(만14~17세)으로 구분하였다. 신고송은 새해의 동요운동으로 과거에 7~8세의 아동의 동요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 연령에 맞는 가장 순수한 동요를 창작해야함을 제시하였다.

홍은성, 「少年運動의 理論과 實際 二」, 『중외일보』 1928.01.06. 4면.

이광수, 「칠주년을 맞는 『어린이』 잡지에의 선물」, 『어린이』, 1930년 3월호. 4면.

호인, 「兒童藝術時評」, 『신소년』, 1932년 8월호, 21면.

신고송, 「새해의 동요운동-동심순화와 작가유도」, 『조선일보』, 1930.01.01.~03.

기에 아직 유년문학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었다.⁴

하지만 1920년대 유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는 유년에 대한 연령 인식 및 교육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1922년 발표된 제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22년 2월 16일자 부령(府令) 제11호로 소학교령에 포함된 「유치원규정」이 공포되었으며, 전문 13조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유치원은 연령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유아를 보육하는 데 그 심신을 건전히 발달시키고 선량한 습관을 길러 가족교육을 보충함을 요한다. 유아의 보육은 그 심신 발달의 정도에 부응하고 회득(會得)하기 어려운 사물(事物)을 과(課)하고 또 과도의 업(業)을 과할 수 없다. 항상 유아의 심정 및 행의(行儀)에 주의하고 이를 바르게 하고, 예시해서 이를 따르게 한다. 항상 선량한 사례를 예시해서 이를 따르게 한다.

제6조 유아보육의 항목은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手技)로 한다.⁵

연령이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육의 항목으로 “유희, 창가, 담화 및 수기”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담화는 유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유년문학의 동화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⁶ 그렇다면 1920년대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모들은 담화의 대상

4 1930년대에 들어서야 신문이나 잡지상에 ‘유년’이라는 독자층을 인식한 장르 명칭으로 유년동화, 유년동요, 유치원 동화, 유치원 동요, 애기동화, 유년소설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한다.

5 이상급, 『한국 근대 유치원 교육사』, 이대 출판부, 1987, 106-110면.

읽기의 편의를 위해 띄어쓰기만 현재 맞춤법에 맞춰 수정하였다. 앞으로 제시되는 인용문도 띄어쓰기만 수정하도록 하겠다.

6 차사백은 담화를 우연 동화, 신화급영웅담, 사실담화급 우발사향의 담화의 4가지로 구분 짓고 있다. 차사백, 『보육요제』, 경성 : 중앙보육학교, 1936.

으로 어떠한 유년동화들을 선택하여 들려주었을까? 유년문학이 정립되기 이전이기에 선택할 유년문학이 매우 부족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여 들려주지 않았을까? 본고에서는 여기에 의문을 품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유치원 보모들의 신분으로 발표된 유년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유치원에서 담화 교재로 활용된 자료로서, 책으로 출간되었고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브라운리의 『어린이낙원』(1936)⁷과 차사백의 『보육일안』(1938)⁸이 유일하다. 두 교재의 저자들은 모두 유치원 보육기관의 보모 및 교수의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이며, 본 자료들은 교사용 지도서로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비록 현재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이생활』의 게재된 광고란을 통해 『교사용 동화』와 『교육동화 1백집』(1931)⁹와 같이 유치원에서 들려줄만한 동화들이 책으로 출간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책들은 교육 교재로만 사용되었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본고에서는 본 책들은 제외하고 잡지나 신문에 발표된 작품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잡지나 신문에 발표된 작품들은 기획특집으로 발표된 일회성 작품들이 대부분이기에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을 면밀하게 고찰해보는데 한계점은 많다. 하지만 유치원 보모가 창작한 몇몇의 작품 속에서 분명히 아동 문학가들과는 차별된 특징이 발견될 것이며, 점차 유년 문학가로서 성장해가는 변모를 통해 유년문학이 성장할 수 있는 원

7 『어린이 낙원』은 뿌라운리 편으로 동경 이화보육학교에서 소학 9년(1934년 5월)에 발행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8 『보육일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보육일안으로 살펴보는 유치원 담화 연구』 22집,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107-147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9 『아이생활』(1931년 10월호)에 보면 홍범선이 쓴 동양 서양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모은 『교육동화 1백집』이 광고란에 소개되었다.

동력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유치원 교육을 담당했던 보모들에게 초점을 맞춰 유치원 교재가 아닌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보모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유년 작가로서의 변모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유년문학의 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유치원 보모 양성교육과 유년문학과의 만남

일제강점기 신문 상에 게재된 중앙 유치원 보육학교의 입학 자격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유치원 보모들은 최고의 엘리트 여성 중의 한 부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양하여 유치원 보모를 양성함으로써 목덕을 삼는 시내 인사동 중앙유치 사범과에서는 금년 사월의 신입할 학생을 좌기 요향에 의하여 모집 한다더라

二. 입학자격

1. 품행방정하고 신체 건전하며 재학중도에 지망을 변치 아니할자
2. 관공사립 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유한자¹⁰

그 만큼 이들을 교육하는 보육학교 교수진 또한 각 분야의 최고의 교수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당시 ‘3대 보육학교(이화 보육학교-중앙 보육학교-경성 보육학교)’¹¹ 중 하나였던 중앙 보육학교의 교수진에 대한 자료

10 「各女子學校入學指南-中央幼稚園範」, 『동아일보』, 1928.02.11.

를 살펴보면,¹² 이 중 아동문학 담당 교사로 방정환 이름이 게재됨을 발견할 수 있다. 방정환이 유치원 보모들에게 아동문학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교육하였는지는 현재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아동문학에 대한 방정환의 철학 및 유년문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양성과정 속에서 보모들에게 전하였을 것이다.¹³

방정환에 이어 1930년대 중반부터 중앙 보육학교의 아동문학 담당 교수진으로 활동하였던 아동문학 작가인 김태오는 「동요운동의 당면임무」라는 제목으로 4회에 걸쳐 글을 연재한다.¹⁴ 그는 현재 조선의 유치원이나 보통학교에서 배우는 창가는 “평범한 수공품을 만들어 교훈과 지식을 넣어주겠다는 공리적 가요”라며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예술성을 지닌 우수한 동요집을 발행하여 유치원이나 보통학교에 새로운 교재로 제공하는 것을 신흥동요운동의 임무라 언급하며, <조선동요연구협회>에 유치원 보모와 보통학교 교사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처럼 김태오는 유년들에게 우리의 좋은 동요를 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유치원 보모들과 아동문학 작가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유치원 보모들이 아동문학 작가로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11 이화보육학교는 1914년, 중앙보육학교는 1922년, 경성보육학교는 1923년에 설립되었다.

12 중앙대학교 80년사 편찬실무위원회, 『중앙대학교 80년사 1918-1998』,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8, 82면.

13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정환이 중앙보육학교의 교수로 재직했었다는 사실뿐이다. 「소년문학의 선구 방정환씨 영면」에 “한편으로는 중앙보육학교의 시간교수로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있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동아일보』 1931.07.25.

그곳에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방정환이 아동문학 교수로 재직하였다는 점을 통해 보육과목으로서 아동문학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것과 방정환이 유치원 보육에 큰 관심을 갖고 보육교사의 양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14 김태오는 「동요운동의 당면임무」 『조선일보』에 1933.10.26.(1), 1933.10.27.(2), 1933.10.27.(3), 1933.10.28.(4) 총 4회에 걸쳐 글을 연재한다.

또한 1932년 10월 색동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경성 보육학교를 인수하여 경영한 점도 유치원 보모들과 아동문학과의 깊은 연관성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 학교의 교수진들을 살펴보면 “교장은 최진순씨, 교감은 이현구씨, 그리고 전임교원으로는 최영주씨를 채용했다. 또 시간강사로 는 조재호·정순철·정인섭 등 색동회 동인들이 참가했고, 또 소설가 이태준과 그 부인, 그리고 화가 유형목 등이 출강했다.”¹⁵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경성 보육학교에 재학했던 보모들은 색동회 회원들로부터 아동문학 작품을 자주 접할 수 있었기에, 아동 문학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높은 교육을 받은 보모들에 대한 처우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류작가 박화성의 회고 기사인 「나의 交遊錄 元老女流가 엮는 回顧의 12번째」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¹⁶ 박화성은 “야학 교사나 유치원 보모는 직업이 아닌 순전한 奉仕여서 경제적인 약속이 없었지만”라고 기록하였는데, 아마 이 당시 유치원 보모는 야학 교사 처럼 개인적 이익 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적 사명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이들이 유년들을 위해 선택하거나 창작한 작품에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교육구국주의 교육운동’¹⁷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본다.

15 정인섭, 『색동회 어린이 運動史』, 학원사, 1975, 122-123면.

16 박화성, 「나의 交遊錄 元老女流가 엮는 回顧」, 『동아일보』, 1981.01.17. 4면.

17 교육구국주의를 『教育學大辭典』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국가를 교육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1905년 한일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교육만이 구국의 길임을 깨달은 민족 선각자들에 의해서 추진된 일대 교육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教育學大辭典編纂委員會, 『教育學大辭典』, 教育科學社, 1979, 137면.

3. 유치원 보모들의 유년문학 작가로서의 성장

일제강점기 잡지나 신문에 유치원 보모의 신분으로 게재된 작품들을 찾아본 결과, 유치원 보모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힌 작품으로는, 1929년 『조선일보』의 「1人 1話 유치원동화」와 1940년 『소년』의 「유치원동화 특집」 그리고 1941년 『아이생활』의 「유치원동화 특집」이 있다. 이것들은 일회성의 기획 내용이기에는 분석의 대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이와 같은 작품들이 널리 쓰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기에 그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1) 『조선일보』의 「1人 1話 유치원동화」

보모들의 신분으로 처음 작품을 게재한 사례로는 1929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8편의 「1人 1話 유치원동화」이 있다. 8편 중에서 5편은 외국의 동화를 번역한 것이고, 3편은 우리의 전래동화를 재화한 경우다.

이처럼 유치원 보모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외국의 작품을 번역하거나 우리의 옛이야기인 전래동화를 재화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는 창작동화 이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방정환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즉 우리에게 동화집 몇권인, 또 동화가 잡지에 게재된대야 대개 외국동화의 역뿐이고, 우리 동화로의 창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섭섭한 일이나, 그러타고 낙심할 것은 업는 것이다. 다른 문학과 가티 동화도 한때의 수입기는 필

연으로 있을 것이고, 또 처음으로 팬이를 잡은 우리는 아주 창작에 급급하기보다도 일면으로는 우리의 고래 동화를 캐어내고, 일면으로는 외국 동화를 수입하여 동화의 세상을 넓혀가고 재료를 풍부하게 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기도 하다.¹⁸

처음부터 우리의 동화를 창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였기에 외국이나 우리의 옛이야기를 기반으로 동화의 세상을 넓히고 재료를 풍부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에서 외국의 번역동화와 재화된 전래동화가 많이 등장하게 된 이유와도 동일하며,¹⁹ 그렇기에 보모의 경우도 처음부터 자신만의 작품을 창작하기 보다는 외국 동화나 옛이야기를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을 것이며, 이는 창작 시작단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양상이었을 것이다.

8편의 「1人 1話 유치원동화」 작품이 게재되었던 192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이 매우 급증하였던 시기였다.²⁰ 이를 증명하는 내용으로 1926년 『동아일보』와 1929년 『조선일보』에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유치원을 소개하는 「유치원 방문기」 기획 기사가 여러 차례 연재되었다.²¹ 연재 내용은 본 유치원에 근무하는 대표 보모가 유치원을 소

18 방정환,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 『개벽』, 1923, 23면.

19 오세란, 『『어린이』지 번역동화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20 1920년대는 3·1 독립운동 이후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함을 깨닫고 계몽운동이 전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유치원 교육에도 큰 영향이 미쳐 1921년부터 10년간에 유치원 수가 약 5배로, 원아 수는 약 10배로 증가하는 발전상을 보였다. 이상근, 앞의 글, 113-117면.

21 「유치원 방문기」 『동아일보』 1926.01.30.~1926.02.08. 총 8회에 걸쳐 그 당시 대표적인 유치원을 대상으로 본 유치원에 다니는 유년들의 가정 상황 및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락원을 차저서」 『조선일보』 1929.04.11.~1929.04.26. 총 16회에 걸쳐 각 시내 유치원 방문기 내용을 연재하였다. 이어 평양 연합유치대회를 앞두고 평양에 위치한 유치원을 소개하는 글을 1929.05.23.~1929.06.14. 총 10회 연재하였다. 이를 통해서 1920년 후반에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조선일보』에서 유치원을 소개하는 보도와 「1人 1話 유치원동화」를 소개한 보도가 세 차례 일치하였다는 점이다.²² 이는 「1人 1話 유치원동화」를 창작한 보도들이 유치원에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보도라는 점과 본 동화가 실제 유치원의 담화로 널리 읽혀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편집 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화 중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잇슬터이니 열대여섯살 먹은 분들이 읽기 조흔 글과 읽어서 유익을 어들글들이 싸로 잇슬 것이요 일구여덟살 먹거나 그러치 안흐면 고만 나히도 못먹은 어린 사람들에게 들릴 동화가 싸로 잇슬 것임니다 이아래 실는 동화는 전부가 유치원에서 실험한 동화로써 가장 성적이 랑호한 것을 출 모흔 것이니 참고가 될가하야 련재함니다.²³

7~8세 또는 그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유년 동화가 따로 존재해야 함을 언급하면서 소개된 작품 모두가 유치원에서 실험한 동화이며, 가장 성적이 좋았다는 것으로 보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 소개된 작품은 비록 8편에 불과하지만, 아마 이와 비슷한 더 많은 동화들이 유치원 보도들에 의해 번역과 재화의 창작 과정을 거쳐 유치원의 유년들에게 읽혀졌을 것이다. 소개된 8편의 동화는 “유치원 동화”라는 장르로 소개되어 그 대상이 유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

22 근화유치원 보도 전영숙의 유치원 소개(1929.04.18.), 「참새 삼봉이」(1929.07.11.-13)

안국유치원 보도 현순희의 유치원 소개(1929.04.20.), 「개고리 왕자」(1929.07.14.)

대자유치원 보도 하영옥의 유치원 소개(1929.04.23.), 「어머니 업는 남매이야기」(1929.07.23.)

23 『조선일보』 1929.07.06. 밑줄은 본 연구자가 중요함을 표기하기 위해 임의로 표시한 것이다.

정진현은 아래의 논문에서 「1人 1話 유치원동화」 목록만을 언급한 바 있다.

정진현, 「1930년대 《동아일보》 유년(幼年)동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9집,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183면.

며, 이야기 내용에 맞게 염근수가 그림을 맡아 그려 유년들의 이야기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²⁴ 8편 모두가 번역과 재화의 과정을 거친 작품들이기에 아동 문학가들에 의해 발표된 작품들과의 상호텍스트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 1] 번역된 작품과의 상호텍스트성

	게재일자	‘유치원 동화’ 제목	작가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작품들
1	1929.07.06	「도야지세마리(一)」	회양유치원 보모 이동숙	김복진의 「새끼 돼지 세 마리」 『유성기 동화』(1935.02.20.)
	1929.07.09	「도야지세마리(二)」		
	1929.07.10	「도야지세마리(三)」		
2	1929.07.14	「개고리 왕자」	안국유치원 보모 현순희	심의린의 「개구리 신선」 『조선동화대집』(1926) 방정환의 「개고리 왕자」 『어린이』(1927. 7월호) 이설의 「공주와 개고리」 『소년』(1939. 9월호)
3	1929.07.16	「참사랑」	대자유치원 보모 김한득	리정호의 「어린이신문-참된 동정」 『조선일보』 1926.03.20. 방정환의 「어린이 讀本-참된 동정」 『어린이』(1927. 4월호)
4	1929.07.23	「어머니 업는 남매이야기(三)」	대자유치원 보모 하영옥	소파의 「내여바린 아해」 『婦人』(1923. 1~2월호)

24 그 동안 염근수에 대한 연구 자료가 희박하였기에, 최근 발표된 정진현의 자료가 매우 값지다고 판단된다. 염근수는 “1925년 이후 소년회 및 동화회 활동뿐만 아니라 잡지 및 신문에 동요(시), 동화, 만화, 과학이야기 등을 발표하며 아동문학가로서의 위치를 다져 나갔”으며 “『별나라』 창간부터 주요 집필진으로 활동하여 잡지 외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장정, 삽화, 그림동요, 만화를 담당하며 전봉제, 임흥은과 더불어 한국 그림책의 인식과 발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진현, 「일제강점기 염근수 아동문학 활동 연구」, 『동화와 번역』,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제36집, 2018, 323면.

또한 염근수는 『어린이』의 「아기차지란」(1930년 6월호)에 ‘유치원동화’라는 장르 명으로 ‘눈뜨고잠자는금붕어’와 ‘홀륭한 어른’ 두 작품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게재일자	‘유치원 동화’ 제목	작가	상호텍스트성을 지닌 작품들
				김복진의 「현철이와 옥주」 『어린이』(1933. 9월호) 김복진의 「현철이와 옥주」 『유성기 동화』(1935.01.20.)
5	1929.07.24	「적은 쇠 상자(一)」	갑자유치원 보모 박정자	방정환의 「천일야화-어부와 마귀이야기」 『어린이』 1화는 (1927. 3월호) 2화는 (1927. 4~5월호)
	1929.07.26	「적은 쇠 상자(二)」 ²⁵		
	1929.07.27	「적은 쇠 상자(三)」		

회양유치원 보모 이동숙의 「도야지 세 마리」(1929.07.06~10)는 영국의 민담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기본 구조로 하되 소재나 배경 및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형되었다. 이 동화는 총 3일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마지막 문장으로 “게으름과 허욕을 내지 않고 잘 살았다.”는 부가적이며 설명적인 표현을 제시하여, 유년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전하고 있다. 반면 결말 부분에서 “망치로 여호의 다리를 때린다.”는 표현과 “죽은 여호의 다리를 하나씩 찢어먹었다”는 표현들은 유년들에게 전하기엔 다소 잔인한 표현인 듯하나, 그대로 번역되었다. 추후에 발표된 김복진의 『유성기 동화』의 「새끼 돼지 세 마리」(1935.02.20.)²⁶에서는 이 부분이 ‘늑대가 돼지네 굴뚝으로 들어가서 타 죽었다’는 표현으로 덜 잔인하게 완화되어 변형되었는데 이러한 결말의 변화는 두고 김경희는 “어린이 독자를 의식한 결과”라 해석하였다.²⁷ 그리고 이동숙의 「도야지 세 마리」의 2일째 마지막 문장에는 “장차 엇더케 될런지?”라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어 유치원에

25 실제 지면에는 「적은 쇠 상자(四)」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연구자가 순서에 맞춰 (二)로 수정하였다. 그 당시 기재 오류로 판단된다.

26 1934년 7월부터 1936년 2월까지 콜럼비아 축음기 주식회사에서 보급반(Regal 음반)으로 발매하였는데 모두 10편의 구연동화가 실려 있었다.

27 김경희, 「김복진의 유성기 동화의 특징」, 『구비문학연구』 제31집, 구비문학연구회, 2010, 545-578면.

서 유년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의 구연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안국유치원 보모 현순희의 「개고리 왕자」(1929.07.14.)는 그림형제의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번역한 작품으로 개구리를 던지기 전인 앞부분의 내용은 원작과 동일하나,²⁸ 그 뒷부분이 많이 변형되었다. “이제 공주는 잠시 골수감에 그래 노코보니 불상도 하고 후회하는 마음도 나서 그 개고리를 손으로 만지며 「에그 가엽서라 내가 잘못했다 이 다음엔 안그럴게」 하고 위로하여 주었습니다”라며 개구리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 “착한 마음은 사람을 살립니다.”로 직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교훈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의 「개구리 신선」에서는 “금애는 이제야 약조를 실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쫓아나가서 신선을 붙들고 사죄하려 하나 신선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고 하였다. 김경희는 “원작에서 보여준 남녀 결합보다 ‘신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로 서사 전개에서 주인공의 삶을 천상과 지상으로 분리하고, 신의를 어기고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²⁹고 해석하였다. 반면 방정환의 「개고리 왕자」(『어린이』 1924년 7월호)에서는 개구리를 잡아서 손으로 꼭 누르고 벽에 던져 죽기를 바라는 잔인한 내용과 “누구가 자괴(개고리)를 집어서 죽도록 찌르는 이가 있서야 그 요술이 벗겨지고 다시 사람이 될터인데”³⁰처럼 비교육적인 내

28 공주는 이제 정말 있는 대로 화가 났다. 개구리를 집어 들고 온 힘을 다해 냐다 벽에다 내동댕이쳤다. “이 더러운 개구리, 이제 조용히 굴겠지.”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것은 개구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다정한 눈을 가진 왕자였다. 그는 이제 왕의 뜻대로 공주의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게 되었다. 왕자는 자기가 나쁜 마녀의 마술에 걸렸었는데, 그를 샘물에서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주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내일 자기 나라로 가자고 말했다. 그림형제, 『그림 형제 민담집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김정연 역, 현암사, 2012, 33면.

29 김경희, 『심의린의 동화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59면.

30 『어린이』(1924년 7월호)에도 「개고리 왕자」 이야기가 실리며 작가명은 방정환의 또 다른 이름인 몽

용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이설의 「공주와 개고리」(『소년』 1939년 9월호)³¹에 서는 말없이 떠난 개구리를 공주가 섭섭해 한다는 내용으로 원작 또는 앞선 작품의 내용과 많이 변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자유치원 보모 김한득의 「참사랑」(1929.07.16.)³²은 『조선일보』의 「어린이신문」³³에 실린 이정호의 「참된 동정」(1926.03.20.)과 『어린이』(1927. 4월호)에 실린 방정환의 「어린이 讀本-참된 동정」³⁴의 내용과 유사하다. 불쌍한 거지를 보고 주인공이 진심으로 동정하여 입을 맞춘다는 이야기 구조가 세 작품 모두 동일하나, 불쌍한 거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앞부분의 이야기와 입을 맞춘 후 일어나는 뒷부분의 이야기에서 각각의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앞부분의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 이정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거

중인으로 소개된다.

방정환이 번역한 「개고리 왕자」의 저본은 나카지마 고토(中島孤島)역 『グリム御伽話』(富山房, 1916)으로 밝혀졌다. 이정현, 「方定煥의翻譯童話と『新譯繪入模範家庭文庫』, 『日本近代文学研究 第16輯』, 2007. 그리고 요시하라 사오리는 방정환의 「개고리 왕자」를 민담의 타입에 따라 분류하며 초자연적인 남편(아내)(AT440)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행복한 결말로 교육·교훈성(공주의 아버지인 임금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여라.」)을 지닌다고 하였다.

요시하라 사오리, 『방정환의 그림동화 수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42면.

31 원종찬 편, 『소년4』 영인본, 역락, 2010.

32 김한득(金漢得)은 『조선일보』에 두 차례 「섬달」(1929.12.02.)과 「으스름 달 아래서」(1929.12.12.) 두 편의 시를 게재하였다. 그런데 이 때 소개되었을 당시 소속이 *자유치원으로 기록되었는데 「참사랑」 발표 당시 소개된 대자유치원과 다르다. 추후 김한득이 유치원을 옮겼는지 아니면 한자 이름까지 똑같은 동명이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김한득이 시를 발표할 정도의 작가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3 『조선일보』에서는 「어린이신문」이라는 목록으로 1925년 7월 12일부터 “유치원이나 보통학교 일학년 정도되는 어린이들이 자미부처 보도록 하기 위하여 굵은 글자로 인쇄하기로 하였으며 각급 자미있는 그림도 넉키로 하였습시다” 편집 의도를 밝히며 50편 이상의 동화를 연재하였다. 대부분의 동화는 이슬우화에 등장하는 동화를 번역하여 교훈을 전하고 있으며 “소파 방정환씨가 원고를 적어주시기로 하였다”라고 작가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어린이』지에 실린 작품과 많이 중복되었다. 유년 독자를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동화를 창작하고자 했던 방정환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이다.

34 「참된 동정」은 당시 민주주의자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던 투르게네프(I. Turgenev)의 산문시 「거지」를 고쳐 쓴 것이다. 이 작품은 방정환이 『신청년』(1920년 8월호)에 처음으로 게재하였다.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이 창조한 주인공」,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비, 2009, 102면.

지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방정환과 김한득은 거지의 불쌍한 상황을 배경 묘사와 함께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방정환의 경우에는 “퍽-퍽” 또는 “헉-헉”의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추운 겨울 날씨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김한득은 “더운 밥, 더운 국, 더운 옷”의 추위와 반대되는 단어들을 중복 사용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의 상황을 더 강조하고 있으며, “에이 추어 에이 추어”의 의성어와 “아들아들” 의태어의 표현으로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거지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모 김한득의 표현이 방정환의 표현과 유사한 문학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방정환의 영향력과 보모들의 창작 능력을 엿볼 수 있다.

거지에게 입맞춤을 하고 난 뒤 이정호와 방정환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거지가 감동을 받아 모은 돈으로 꽃을 사서 주인공에게 전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김한득의 경우에는 거지가 선녀로 변해서 혜숙이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꽃을 준다는 이야기로 변형되어 제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하야 혜숙이의 참사랑하는 마음으로 혜숙이네 집은 크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며 나보다 어려운 동무를 동정심을 갖고 도와주면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대자 유치원 보모인 하영옥의 작품인 「어머니 업는 남매이야기」(1929. 07.23.)는 그림형제의 『헨젤과 그레텔』을 번역한 작품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 싶었으나, 아쉽게도 다음 편 작품을 현재 확인할 수가 없다. 『조선일보』 게재 날짜가 1929.07.23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목 옆에 “三”이라는 횃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시작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현재 확인할 수가 없으며, 다음 날인 1929. 07.24.에는 「적은 쇠 상자」의 다른 작품이 게재되었다. 확인 가능한 내용

을 바탕으로 원작과 비교해보면 의붓어머니 때문에 버림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동일하나, 원본에서는 헨젤이 밤에 몰래 나가 하얀 자갈을 주어오는데 하영옥의 「어머니 업는 남매이야기」에서는 버림받는 줄 모르고 가는 도중에 우연히 까먹은 콩의 껍질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순진한 유년상이 그려진다. 그 이후의 글은 확인할 수 없다. 하영옥의 작품 이전인 1923년 1월호에는 방정환이 소파라는 이름으로 『婦人』 잡지에 「나여바린 아해」(1923.1~2월호)의 글을 싣는데, 본래 독일의 작품이라는 것을 작품 뒤에 명시하였다. 주인공의 이름을 헨젤과 그레텔로 그대로 번역하였으며, 내용도 원작과 거의 유사하다. 반면 보모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극예술 작가인 김복진은 『어린이』에 「현철이와 옥주」(1933년 9~10월호)³⁵를 발표하는데, 원작에서는 마녀이지만 본 동화에서는 ‘여호 할멈’³⁶이 등장한다는 점과 원작에서는 계모가 이미 죽어 있었으나 본 작품에서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착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결말이 새롭다. 김복진은 1935년에 다시 『유성기 동화』(1935.01.20.)³⁷로 「현철이와 옥주」 작품을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부모가 남매를 산 속에 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 몰래 산으로 놀러가서 실을 잃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두고 조은숙은 “핵가족을 중심으로 중상류 계층의 윤리 감각과 정서적 취향을 반영하여 서구의 옛이야기를 나름의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전유하는 방식”³⁸을 보여준 사례라 언급하였다. 그리고 마녀 대신에

35 『미공개 어린이 3』 영인본, 2015, 소명출판.

36 앞선 이동숙의 「도야지세마리」에서도 늑대가 여호로 변용되었는데, 「현철이와 옥주」에서도 마녀가 아닌 여호가 등장한 점이 의미있는 부분이다. 아마 이 시기에 여호의 이미지가 나쁜 대상으로 일반화되었을 것이고, 여호의 소재가 우리 전래동화에서 착안된 소재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유성기 동화 작품의 내용은 정인섭, 『김복진, 기억의 복간』, 경인문화사, 2014.에 수록된 작품을 참고하였다.

38 조은숙, 「유성기 음반에 담긴 옛이야기」, 『민족문화논총』 제49호, 민족문화연구원, 2008, 237면.

여우가 둔갑한 꼬부랑 할머니가 등장한다. 여우와 꼬부랑 할머니는 우리의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김경희는 “서구의 동화와 조선의 옛이야기를 결합한 새로운 전래동화로 변용”³⁹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는 문제를 남매가 스스로 해결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흰머리의 신선 할아버지가 등장하여 “다시는 부모님 몰래 나와 놀면 못쓴다”는 교훈을 남기고 현철이와 옥주의 집을 찾아준다. 현철이와 옥주는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어머니가 참 기뻐하셨다는 결말과 “다시는 몰래 놀러 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더 좋은 아이가 됐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갑자유치원 보모 박정자의 「적은 쇠 상자」(1929.07.24~26)는 욕심을 내면 벌을 받는다는 교훈적인 이야기 구조로, 이야기 도중에 “넘우 욕심을 내면 도리어 더벌을 맞는다”는 대목에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춘보의 일을 교훈삼아 목수와 그의 아내는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하십시오”하며 조금씩 소원을 말하며 훗날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로 욕심은 금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동화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며, 짝이나 향아리 등에서 연기와 함께 소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의 설정이 『어린이』에서 「천일야화」⁴⁰로 소개된 ‘어부와 마귀이야기’와 유사하다.⁴¹ 두 이야기 속에서 전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욕심을 갖

39 김경희, 앞의 글, 554면.

40 방정환은 『어린이』(1927.2월호)에 萬古奇談으로 천일야화(千一夜話)를 “자미있고 신기하기로도 데일 유명하고, 복잡하고 길다랗기로도 데일 유명하고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덤으로도 데일 유명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일동안 이어진 긴 이야기 중에서 “데일 재미있는 것 또 여러분이 알기 쉬운 이야기만 골라 써서 내 정성으로 필수 있는테까지 쉬웁게 이야기를 간단히 말습해 드리겠습니다.”하며 재미있으면서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만 골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번역하여 소개하려는 방정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41 1화는 『어린이』(1927년 3월호), 2화는 『어린이』(1927년 4~5월호)

지 말고 마음이 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박정자의 「적은 쇠 상자」에서는 무서운 마귀 대신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어부와 마귀이야기」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도록 백대씩 때리고 돌아간다”는 잔인한 표현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박정자가 유년이라는 독자들을 인식하고 유년의 정서에 맞는 표현들로 순화하여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人 1話 유치원동화」에 소개된 5편의 외국 번역동화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작가로서 유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인 대화체로 전하고 있다는 점과 유년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잔인하거나 무서운 표현들을 순화하여 표현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전후 창작된 아동문학 작가들의 작품들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본 결과, 5편 중 4편의 작품이 『어린이』에도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어린이』의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였다는 점과 그 안에 담긴 아동문학 작품들이 유치원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⁴²

다음으로 전래동화를 재화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재화된 작품과의 상호텍스트성

	게재일자	‘유치원 동화’ 제목	작가	상호텍스트성 작품
1	1929.07.11	「참새 삼봉이」(一)	근화유치원 보모 전영숙	심의린의 「두 형의 회개」 『조선동화대집』(1926)
	1929.07.12	「참새 삼봉이」(二)		
	1929.07.13	「참새 삼봉이」(完)		
2	1929.07.17	「달나라에서 온 토키」(一)	수송유치원 보모 전영은	현덕 「달에서 떨어진 토끼」 『조선일보』(1927년) 최경화(鏡花)의
	1929.07.18	「달나라에서 온 토키」(二)		

42 “어린이 운동이 전개한 동요 동화의 창작 붉은 유치원의 노래와 동화 시간에 활용되는 교재를 생산한 것이다. 또한 어린이 운동에서 전개한 가극회, 구연동화대회, 음악회는 유치원의 활동방법으로 적용되었다.” 이상금, 앞의 책, 163면.

	게재일자	‘유치원 동화’ 제목	작가	상호텍스트성 작품
				「달 속의 토크」 『어린이』(1929년 5월호)
3	1929.07.19	「금강산 호랑이」(一)	만리재유치원 보모 이영하	「범과 효자」와 「범이 개 된 이야기」 박영만 『조선전래동화집』(1940)
	1929.07.20	「금강산 호랑이」(二)		

「1人 1話 유치원동화」에 소개된 우리의 ‘전래동화’⁴³는 모두 세 편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이야기인 전래동화를 유년들에게 전하였다는 점은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민족정신을 유년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1929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유치원 방문기」 기사 중 수송유치원의 최경숙 보모는 「동요와 동화는 고유한 우리것으로-창작하려면 재료는 만타는 글」을 연재한다.⁴⁴ 최경숙은 아희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이야기가 조선에 발달되지 못했기에 서양 것이나 일본 말을 번역해서 불러야 하는 현실과 10살 넘는 아희들과 5~6살 먹은 아희들이 느끼는 감정과 재미 및 흥미가 다르기에 들려주는 이야기를 달리해야하는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동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가튼 것을 유희를 부쳐서 아르켜주면 아조 쉽게 배호고 여간 재미가 잇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도 호랑이 이야기 가튼 것을 해주면 손스벽을 두드리며 펍 조아합니다” 하며 우리가 가진 고유하고 아름다운 조선의 동화나 동요를 우리 유치원의 힘으로 가르치고 새롭게 창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을 통

43 “동화, 고래동화, 옛이야기 등으로도 호칭되는 ‘전래동화(傳來童話)’는 고전서사 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재화된 근대 서사문학 텍스트를 일컫는 용어이다.” 권혁래,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의 문예적 성격 고찰」, 『한국문화논총』 제76집, 한국문화회, 2017, 51면.

44 『조선일보』 1929.04.16.

해 유치원에서 전래동화나 전래동요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줌으로써 우리의 민족의식을 유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부모들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당시 아동문학의 주요 잡지였던 『어린이』에서도 전래동화를 종종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오세란은 “『어린이』지는 일제에 대한 전면적 저항보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을 지면을 통해 알리면서 식민지 어린이들에게 주체성과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했다.”⁴⁵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어린이』에 게재된 대부분의 작품들은 굉장하게 지역의 전설이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3편의 동화 내용과 유사한 작품을 찾기는 어려웠다.⁴⁶

김경희는 “192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朝鮮童話集』, 1926년 심의린의 『朝鮮童話大集』, 1940년 박영만이 『朝鮮傳來童話集』은 조선 3대 전래동화집이라 불리며 오늘날 간행되는 각종 전래동화집의 원전으로 인식되어 왔다.”⁴⁷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29년에 게재된 <1人 1話 유치원동화>와의 상호텍스트성 작품으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과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1940)을 참고하여 그 상호 관련성을 찾아 보고자 한다.

근화유치원 보모 전영숙은 아희들에게 우리의 것을 가르쳐야함을 강조했던 보모로,⁴⁸ 발표된 작품도 전래동화인 점이 그의 교육 철학과 창

45 오세란, 앞의 논문, 38면.

46 전설은 “인물의 업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하고, 인물담은 “인물의 배경과 호기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주체성을 심어 주는 기능”을 하였다. 김은천, 『「어린이」지 게재 전래동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33면.

47 김경희,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화회, 2008, 213면.

48 “근래에 유치원 사이에 문제가 되는 일본 말 창가나 동요가튼 것은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안홀 방침

작 의도와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참새 삼봉이」(1929.07.11.~13)는 성실하고 우애 깊은 참새 삼형제의 이야기로, 형제의 우애에 감동받은 고양이가 모두를 놓아주며, 어머니의 병도 좋아진다는 이야기이다. 성실한 형제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야기 첫 부분인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한다” 대목에서는 전영숙 보모 작가가 유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육적 메시지를 유년들에게 말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의 고양이가 전하는 말에서는 “이러케 부모를 위하고 동생 간에 의리 잇는 새를 엇더케 잡아먹으랴, 오냐 너희들은 참으로 착한 아희들이다 병드신 어머니를 위하야 목숨을 앗기지 안는 너희들이니 아모리 내가 배가 곱흔들 엇지 잡아 먹겠니” 내용을 통해 효심과 우애라는 덕목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장이 끝날 때 마다 “아! 어머니는 어디로 갔나”, “아! 엇지 나 되었는지”의 표현은 구연동화의 서술 방식을 보여주면서, 읽는 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반면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에서도 형제와 관련된 작품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욕심 많은 형과 착한 아우의 설정으로 형은 벌을 받고, 동생은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많다.⁴⁹ 이 중에서 「두 형의 회개」에서도 삼형제가 등장하는데, 첫째와 둘째는 괴팍하고 욕심이 많아 끝내 벌을 받고, 셋째는 정직하고 착하여 복을 받으며 마지막에 형들은

입니다. 세 살적 버릇이 팔십까지 간다고 아 즉 제 나라말도 변변히 하지 못하는 아희들에게 뜻도 모르는 말을 앵무새 흉내내듯이 입썩리로만 가르쳐준 것은 도저히 찬성할수 업는 일입니다.”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유치원 방문기」(1929.04.18.) 중 근화유치원 전영숙의 담화 내용인 ‘순전한 조선의 정신으로 보육한다.’가 소개된다.

49 『조선동화대집』에 등장하는 ‘욕심 많은 형’의 설정 작품으로는 총 6편의 작품을 찾을 수 있다. 「금방망이 은방망이」, 「착한 아우」, 「놀부와 흥부」, 「말하는 남생이」, 「두 형의 회개」, 「푸른 구슬과 빨간 구슬」이다. 심의린·최인화 편, 『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

잘못을 뉘우치고 화목한 가족을 이룬다는 이야기이다. 「두 형의 회개」와는 반대로 「참새 삼봉이」삼형제는 모두가 성실하고 우애가 좋다. 이는 형제간에 서로 착한 마음으로 우애 좋게 지내야한다는 교훈을 유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리재유치원 보모 이영하의 「금강산 호랑이」(1929.07.19~20)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호랑이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마침내 호랑이를 죽여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는 이야기 구조이다. 1920년대 출간된 전래동화집들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발간된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1940)⁵⁰의 「범과 효자」와 「범이 개 된 이야기」에서 유사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갚는다.’는 설정과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호랑이와의 싸움을 오랜 시간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유사한 이야기 설정이다. 박영만의 저서에 제시된 두 작품의 장소가 모두 평안남도인 것을 보면, 「범과 효자」와 「범이 개 된 이야기」가 동일한 지역의 이야기에서 서로 각각 다르게 파생된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보모의 「금강산 호랑이」와 박영만의 「범과 효자」 「범이 개 된 이야기」는 이야기의 앞부분이 거의 동일한 구조이다. 다만 범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각각 다르게 펼쳐진다. 시기를 비교해 보면, 「금강산 호랑이」가 1929년으로 먼저 발표되었지만, 박영만이 전래동화집을 낸 시기가 1940년이기에, 그 이전에 전래동화를 수집하였다면 1929년보다 앞서서 알려진 작품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송유치원 보모 전영은의 「달나라에서 온 독기」(1929.07.17.~18)는 달나라에 토끼가 은방아를 쫓게 된 사연을 이야기로 풀어간다. 달나라에

50 박영만 지음·권혁래 옮김, 『화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 보고사, 2013.

토끼가 산다는 설정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적인 설화이다. 내용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상호텍스트성 작품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달 속의 토끼’라는 이야기 화소가 유사한 작품으로 『조선일보』에 1927년에 발표한 「달에서 떨어진 토끼」와 『어린이』(1929년 5월호)에서 발표된 최경화(鏡花)의 「달 속의 토끼」를 찾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이야기 구조이지만, 동일하게 ‘달 속 토끼’라는 모티브를 사용한 점을 통해 ‘달 속 토끼’ 이야기는 1929년 당시 유행하는 화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전영은의 「달나라에서 온 토끼」 등장하는 내용으로 토끼가 나무가 자라게 하는 주문의 노래로 알려진 “달도 달도 밝다 명달도 밝다 이 적은 나무야 무럭무럭 자라거라”의 노랫말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전래동화와 전래동요를 유년들에게 소개하여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했던 보모들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2) 『소년』의 ‘유치원 동화 특집’

『소년』은 1937년 4월 1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윤석중이 맡기 시작하면서, 2년만인 1939년 6월 윤석중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소설가 이석훈이 그 자리를 이었고, 폐간 때는 소설가 김영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 『소년』은 1940년 12월호(통권 45호)를 내고 강제 폐간 당했다.⁵¹

『소년』(1940년 10월호)에 「幼稚園童話特輯」으로 4편의 동화가 실려있다.⁵² 「幼稚園童話特輯」과 관련하여 제시된 ‘선생님 소개’란을 살펴보면,

51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280-283면.

52 정진현은 1930년대 유년문학을 소개하면서 『소년』에 실린 보모들의 작품을 언급하였다. 정진현, 「아동문학의 장르 분화와 유년문학의 등장」, 『동화와 번역』, 동화와 번역 연구소 제34집, 2017, 262-264면.

첫 번 얘기 「세발자전거」를 써주신 백화선 선생님은 청진유치원, 그 다음 「셋 빨간 양복」을 써 주신 장효준 선생님은 혜화유치원, 다음 「이상한 선물」을 써 주신 김정숙 선생님은 이화유치원, 맨 끝으로 「세 나라」를 써 주신 선생님은 조양유치원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조자조 써 주시게 되었습니다.⁵³

유치원 부모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는 있지만, 그 이후 『소년』이 폐간된 탓에 부모들의 창작 작품이 지속적으로 연재되지는 못하였다.

청진유치원 백화선 선생님의 『세발자전거』는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 오시는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석이의 모습과 친구와 내기 경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천진난만한 유년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경기 중 어린 동생 영옥이와 부딪히게 되고 경기에 이길 것인지 동생을 도와줄 것인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데, 석이는 끝내 동생을 도와주는 선택을 한다. 착한 행동에 칭찬과 과자를 받은 석이는 영이와 다시 재미있게 놀았다는 행복한 결말을 통해 이 동화를 읽는 유년들에게 석이와 같은 동정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함을 은연 중에 전하고 있다. 실제 유년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 교훈성을 전하고 있어 전달력이 더 크게 느껴진다.

혜화유치원 장효준 『셋빨간 양복』은 ‘빨간’이라는 특정 색의 소재가 폐로의 『빨간 모자』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아픈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드리다가 늑대를 만나는 원작의 설정과는 달리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아주머니 생신 선물을 전해드리고 오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53 원종찬, 『소년 6』영인본, 역락, 2009, 194면.

다. 그리고 이야기 서두에서 제시된 경순이 집 주변의 배경 묘사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동화적 설정이며,⁵⁴ 상상적 배경 묘사를 통해 보모 장효준의 예술적 창작 실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순이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아주머니 생신 선물을 전해드리기 위해 가장 좋아하는 셋빨간 양복과 모자 그리고 비단 양산을 갖고 떠난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순이는 집오리들을 만나고 비단 양산을 번쩍 들어 올려 따라오는 오리를 피했다는 설정과 놀아주던 아기토끼와 양산을 타고 하늘을 등실등실 떠 다녔다는 설정이 다 상상 속 경순이의 꿈 이야기이다. 이야기 속에서는 꿈 이야기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경순이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그저 경순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웃으셨습니다” 대목을 통해 경순이의 순수한 상상의 꿈 이야기를 엄마가 그대로 지켜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화유치원 김정숙의 『이상한 선물』은 “오랜 옛날 어느 곳에” 설정으로 전래동화를 개작한 이야기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언니 옥순이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지 못한 어머니와 힘든 일을 묵묵히 하는 친절하고 예쁜 동생 유순이의 설정은 콩쥐팥쥐가 떠오른다. 물을 뜨러 갔다가 도와준 더럽게 생긴 여자에게 말을 하면 꽃과 보석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된다. 이 여자는 다름 아닌 천사였다. 이 사실을 알고 욕심 많은 엄마는 언니를 똑같이 샘플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어여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물을 달라는 부탁에 언니는 불친절하게 물을 주지 않는다. 그 벌로 언니는 말 할 때마다 징그러운 즂새이 나오게 되자 엄마는 동생이 거짓말 했다

54 1940년대 경순이의 실제 생활이라기 보기 어려운 동화 속이나 설정될 수 있는 배경이 묘사되어 있다. “소마루 버드나무 은행나무들이 겹겹이 쌓인 깊은 수풀 속을 지나 조울조울 흐르는 맑은 시냇가를 지나서 얼마를 가면 빨간노랑 분홍 알락달락 핀 넓은 들이 있고 그 옆에는 셋빨간 지붕을 한 조고맏고 깨끗한 집에 올레 일곱 살 된 경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 생각하고 때리려고 한다. 그러자 숲속에 숨은 유순이는 이번에는 왕자를 만나고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둘은 사랑에 빠져 궁궐로 들어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 후 엄마는 마음이 더 나빠져 언니마저 내쫓고 언니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다소 억지스러운 설정이지만 유년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착하고 친절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양유치원 이순이 선생님의 『세 나라』는 옛이야기가 생각나는 이야기 구조로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던 홍서방, 황서방, 청서방이 바닷가에 나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우연하게 만나게 된다. 그 후 서로의 나라 임금님에게 받은 요술 방망이로 재미있는 빗깔을 만들어 지금의 하늘이 하늘빛을 갖게 되었으며 색색이 고운 빗깔의 꽃들이 피고 잎사귀만은 파랑 빗깔로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세 나라』의 유래담 형식은 ‘유치원 교재’⁵⁵의 동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유년들에게 세상의 다양한 사물에 대한 존재 및 의미를 동화의 소재로 채용하여, 동화를 통해 유년들에게 지혜를 심어주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가 담고 있다.

3) 『아이생활』의 「유치원동화 특집」

『아이생활』은 1926년 3월 10일자로 창간되어 1944년 1월까지 18년간에 걸쳐 통권 218호를 발행한 우리나라 소년소녀잡지 중 가장 장수한 잡지이다. 창간 이후 『아희생활』로 쓰다가 1930년 11월호부터 『아이생활』로

55 차사백의 『보육일안』(1938)의 담화 형식을 살펴보면 유래담 형식이 보육의 주제에 맞춰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바뀌었다.⁵⁶

1941년 3월호에는 속 표지 그림에 경성보육, 중앙보육, 이화보육 졸업생들의 사진첩을 실었으며, ‘유치원동화 특집’을 기획하였다. 「편집을 마치고」에 실린 편집 의도를 살펴보면,

올해 各保育學校를 마치고 방방곡곡에 흩어져 우리 어린이들을 길러주고
가라쳐 주실 고마우신 아주머니들의 얼굴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써주신 귀여
운 글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特히 附錄으로 幼稚園童謠曲 六篇을 실렸스니 이만
하면 童話集으로써 또 童謠曲集으로써 손색이 없다고 믿습니다.⁵⁷

이번 호의 특집으로 보육학교를 졸업한 유치원 보모들의 글을 실었으며, 부록으로 실린 동요곡까지 동화집과 동요곡집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하고 있다. 작품별로 수준 차이는 있지만, 보모들의 창작 수준을 높아졌으며, 보모들의 작품이기에 더욱더 실제 유치원에서 널리 읽히고 불리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유치원 동화 특집」에 실린 보모들의 작품들⁵⁸

	장르명	작품명	소속	이름
1	미기재	뽕뽕이	중앙보육	한정희
2	동화	이상한 열매	중앙보육	이상이
3	소설	동무	경성보육	우남득
4	동화	이상한 부채	이화보육	오용순

56 최덕교, 앞의 책, 257면.

57 『아이생활』, 1941년 3월호.

58 작품들의 나열 순서는 발표된 작품 순서를 따르지 않고, 본 연구자가 임의로 장르의 형식 및 특성에 근거하여 재배열한 것이다.

	장르명	작품명	소속	이름
5	구연동화	하늘나라	경성보육	김태준
6	쓰림동화	사자와 개고리	이화보육	권노덕
7	유년동화	빨간구두	경성보육	한순택
8	미기재	산스길	중앙보육	김성보
9	미기재	자장가	경성보육	김동운
10	미기재	밤비	중앙보육	김봉주
11	미기재	눈 오는 날	경성보육	우옥선
12	미기재	그림자	중앙보육	최정자
13	미기재	밤하늘	중앙보육	김병애
14	미기재	봄바람	중앙보육	김용녀

총 14편의 작품이 실려 있으며, 장르명에 있어서 동화류의 작품들은 「똥똥이」를 빼고는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 반면, 동요류의 작품들은 모두 장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동요의 경우에는 운문의 형식으로 산문과는 확연하게 구분되기에 따로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동화류의 경우에 ‘동화’ ‘소설’ ‘구연동화’ ‘쓰림동화’ ‘유년동화’ 등 다양한 장르명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아직 유년문학의 장르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과 더불어 보모들 작품의 특징을 살린 장르명을 의도적으로 달리 편집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똥똥이」는 일곱 살 똥똥이가 도토리를 주우러 산으로 갔다가 호랑이를 만나는데 지혜를 발휘하여 오히려 호랑이를 잡아 부자가 되고, 용맹스러운 장군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유년들이 좋아하는 호랑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작품명처럼 유년의 똥똥함으로 호랑이도 물릴 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이다.

「이상한 열매」는 효녀 순길이가 나무하러 갔다가 깜빡 잠이 들고 꿈 속에서 할아버지에게 받은 열매를 새가 갖다 주어, 이 열매를 먹은 어머니 병이 나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당시 동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효녀효자의 설정요소와 우연하게 만난 누군가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 구조가 다소 진부적이다. 하지만 작품 서두에 제시된 순길이가 살고 있는 ‘산 속의 배경 묘사’⁵⁹가 작가로서의 예술적인 표현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동무」는 새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태옹이를 위해 수진이와 종필이가 동정심을 갖고 태옹이를 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태옹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동무」에서 전하고 있는 동정심은 이 당시 보모들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교훈적인 메시지이다. 본 작품의 장르만 동화가 아닌 소설이라는 장르명이 사용되었는데, 아마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이기에 소설이라는 장르명을 사용한 듯하다.

「이상한 부채」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어렸을 때 드른 이야기 중에서”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잘 알려진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전래동화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결말로 욕심을 부린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 맺음은 훈훈한 결말을 통해 유년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보모 작가들의 공통된 서술 방식이다.

구연동화인 「하늘나라」는 아기별이 엄마를 따라 아저씨네 잔치를 갔다가 자기를 빼먹었다고 화를 내는 햇님에게 사과하면서 별님과 달님이

59 “진달래 개나리꽃이 아름답게 핀 넓은 벌판을 지나 또한 고개를 넘으면 조그만 초가집 한 채가 뵈인다. 그 집 뒤에는 뽕나무가 우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어여쁜 꽃들이 아름답게 피는 넓은 들이 있습니다.”

햇님을 보면 숨어버린다는 유래를 이야기식으로 전하고 있다. 본 작품을 구연동화로 명명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우선 문장에서 끝나는 어미가 “~세요.”의 대화체가 자주 등장한다. 또한 중간중간에 “쟁아쟁아 고추쟁아”처럼 동요와 같은 짧은 대목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아기별을 설명하는 첫 대목에서 “아기별은 유치원에도 잘 다니고 어머님 말씀도 잘 듣는 이쁜 별이었어요.”라고 착한 유년이 되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사자와 개고리」는 사이좋은 왕자와 공주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냥을 간 오빠가 오지 않자 공주가 오빠를 찾으러 산 속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사자를 만난다. 사자 등에 타서 간 대궐에서 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오빠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고 장미꽃으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데 연못에서 개구리가 나타나 도와준다. 개구리는 잠든 사자의 제일 길고 굵은 털을 뽑으라고 알려주어 그렇게 하자 사자는 오빠로 변한다. 오빠는 요술쟁이 할멈을 만나 마법에 걸려있었던 것이고, 개구리는 색시로 변해 세 사람은 부모님이 있는 대궐로 즐겁게 돌아온다. 이 작품은 ‘쓰림동화’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림 삽화가 들어가서 그림동화가 아니라, 그림형제의 민담을 번역하였기에 그림동화라는 장르 명을 사용한 듯하다.

「빨간 구두」는 7편 중 유일하게 유년이라는 명칭을 장르명에 제시한 작품이다. 새를 보살펴준 댓가로 새에게 받은 가방을 타고 까만 나라에 가서 가방 속에 들어있던 빨간 구두를 신고, 쿵쿵쿵하니 까만 나라 사람들이 몇 달을 두고 못 했던 헌집을 단 번에 헐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서사 구조에 있어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어서 복을 받았다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장르명은 없지만 동요 형식을 갖춘 7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4.4조의 정형률을 따르는 작품이 있는가하면 자유 형식을 보이는 작품도 있어 보모들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동요를 창작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우선 4.4의 정형률을 지닌 동요로는 「자장가」와 「눈 오는 날」이 있다.

자장자장 잘도잔다/우리아기 잘도잔다/옥토기로 잠을자고/꼬꼬닭도 자을잔다//자장자장 잘도잔다/우리아기 잘도잔다/별아가도 잠을자고/둥근달 잠을잔다

- 「자장가」전문

하늘나라 별나라서/하얀눈이 사뿐사뿐//이쁜동생 좋아라고/눈사람을 맨들고요//바둑이도 좋아라고/요리조리 뛰놀지요//하늘나라 별나라서/하얀눈이 나뒀나플

- 「눈 오는 날」전문

「자장가」는 “자장자장 잘도잔다. 우리아기 잘도잔다.”의 널리 알려진 자장가의 어구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주고 있다. 또한 「눈 오는 날」은 눈이 와서 행복한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하늘나라 별나라의 설정으로 동심의 상상적 요소를 더하고 있다.

밤비는 부슬 부슬/개고리는 개골 개골/슬피 우는데/열밤자고 오시마뎌/시집 가신 누나는/오늘도 오지않고/밤이 깊었네// 나무뉘를 스치는/바람 소리에/문을 열고 내다보니/누나가신 산비탈은/아무도 없고/쓸쓸히 부실 부실/비만 옵니다

- 「밤비」전문

「밤비」는 시집간 누나가 오지 않아 쓸쓸한 마음을 밤비에 투영하여 비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으며, “밤비는 부슬 부슬, 개고리는 개골 개

골” 의성어 사용으로 상황의 생동감을 준다. 그리고 누나의 빈자리에 대한 쓸쓸함을 ‘쓸쓸하게 부실 부실 내리는 비’에 비유함으로써,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고 있다.

어떤길로 가나/솔밭속 꼬불 꼬불 꼬부라진길/하늘에 매달리고 있는/초생달/
멀 리 쳐다보니 고향생각 절로나네//밭밑에 길동무/날 오라 끄는 듯/날 위로
하는듯//어디어디 꺼져 동무하러나/솔밭속외줄기길/꼭부라/진길

- 「산스길」 전문

「산스길」 또한 자유 형식으로 산속 길을 동무로 비유한 시적 묘사 방식이 기존의 보모 작품과는 차별화된 문학가로서 성장의 모습을 보인다. 길을 동무로 비유하여 어느 길로 가야하는가의 망설임을 동무가 오라한다는 의인화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작품의 생동감을 주고 있다.

깜박 깜박 밤하늘엔/애기별이 놀고요/저하늘을 건너오는 바람소리는/아마
한 하늘에서 춤을추어요/애기별이 깜박 깜박/줄고 있는땐/멀리뵈는 저하늘이
그리워져요 - 「밤하늘」 전문

「밤하늘」은 밤하늘의 별을 의인화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깜박깜박”이라는 의태어의 반복적 표현이 애기 별의 모습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달을 맞으려/뜰에 나가면/의례 따라오는/정다운 내 그림자/밤새도록 헤메여
도/떠나지않고/말아만 땡기는……//동무가 많다고 한들/너같은동무/또 어디 있

으리…… - 「그림자」 전문

봄바람 하늘 하늘/종달이 노래하면/고향의 산천이 보고싶어요//봄바람 하늘
하늘/나뭇 춤추면/어머님 얼굴이 보고싶어요 - 「봄바람」 전문

그 외의 「그림자」와 「봄바람」은 대상을 보면 떠오르는 것을 이미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적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유치원 동화 특집」에 실린 동요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이 당시 아동문학가들의 작품성 못지않은 문학가로서의 실력들을 유치원 보모들이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동화 특집」에 바로 이어 다음 장에는 부록으로 보모들이 작곡한 「유치원 동요곡집」 6편의 동요가 실리는데, 윤석중의 노랫말을 담은 동요도 2편이나 있다.

[표 4] 「유치원 동요곡집」에 실린 6편의 동요 작품들

	작품명	작사(謠)	작곡(曲)
1	눈굴리기	윤석중	이화보육 유병은
2	어린별	우리집 中	이화보육 김성호
3	햇님	윤일수	경성보육 김영희
4	인형	경성보육 최주일	
5	숨박꼭질	윤석중	이화보육 현금봉
6	설날	경성보육 홍윤옥	

6편 모두 악보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작곡가의 이름으로 유치원 보

모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이 작품들을 유치원 보모들이 실제로 모두 순수 창작했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유치원에서는 일본의 동요를 많이 편곡하여 사용하는 분위기였기에, 일본의 곡들을 참고하였을 수도 있다.

6편중에서 『인형』과 『설날』은 작사와 작곡 모두 유치원 보모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인형』의 노랫말은 인형을 보면서 활짝 웃으며 노는 동생의 모습을 담고 있고, 『설날』은 “나는 나는 설날이 제일 좋아요”로 시작하면서 유년들이 설날에 하는 새배, 널뛰기, 소꿉놀이 등의 유희들이 노랫말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보다 유치원 보모들이 유년들의 생활을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유년들의 모습을 더 잘 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 그 외의 곡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이점은 모두 노랫말 속에 유년들의 유희하는 모습이나 사물을 보고 유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희는 유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이는 유년들의 생활을 자세하게 관찰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만큼 이런 동요들이 실제 유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기에, 『유치원 동요곡집』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여기에 실리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또한 이 당시 유치원에서는 유희 형태로 ‘표정유희’⁶⁰가 유행하였다. 따라서 유치원에서는 위의 곡들을 표정유희 곡으로 활용하였을 수도 있으며, 그 만큼 널리 불렸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유년들의 교육하는 보모들이기에 그들이 창작한 작품들은 다른 아동문학가들의 작품보다 우선적으로 유년들에게 들려주었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유년

60 표정유희는 소리와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신체 표현의 방식으로, “가사의 의미를 신체로 움직이면서 이미지를 가진 춤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박혜리나, 『유치원 유희창가 연구』, 민속원, 2016, 78면. 표정유희는 가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기에 이 당시에는 동요의 노랫말에 더 주목하여 예술성이 높은 가사들을 많이 창작하려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교육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유년 작가로서 자부심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비록 6편의 유치원 동요들이 소개되었지만,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동요 곡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유치원 보모들이 아동문학 작가로서 성장하는 변모를 엿볼 수 있었다.

4. 맺음말 - 유치원 보모들을 통한 유년 문학의 성장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보모들의 작품들로 1929년 『조선일보』의 「1人 1話 유치원동화」와 1940년 『소년』의 「유치원 동화 특집」 그리고 1941년 『아이생활』의 「유치원동화 특집」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세 작품 모두 연속성을 지닌 연재물이 아니라 일회성의 기획특집 작품들이기에 유치원 보모들의 작가로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기에는 한계점은 많다. 하지만 시대별 보모들의 작품을 보면서 작가로서 성장해가는 변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로 보모들의 작품으로 확인된 것으로는 1929년 『조선일보』의 「1人 1話 유치원동화」가 있다. 창작의 시작단계에서 자주 보이는 번역과 재화 형태의 작품들이 각각 5편과 3편 소개되고 있는데, 번역이나 재화된 작품이기에 전후 아동문학가들에 의해 번역이나 재화된 작품들과의 상호텍스트적 관련성이 매우 높았다. 작품의 내용으로 교훈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문학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유년들을 가르치는 보모의 입장이기에 교육적인 내용을 유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보모 작품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번역과 재화의 과정에서 유년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잔인하거나 무

서운 표현들이 많이 순화되어 표현되었으며, 구연식 서술방식이 많이 사용된 점도 특징으로 제시할 수 있다.

1940년 『소년』의 「유치원동화 특집」에서는 4편의 동화가 소개되는데, 장르명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구분해 본다면 생활동화, 번역동화, 재화동화, 유래동화로 나름의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만큼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보모들이 창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본다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이라 판단된다. 특히 생활동화「세발자전거」 생활동화의 경우에는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보모의 순수 창작물로 유년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번역이나 재화가 되었어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소재와 전개 내용에 있어서 변형의 폭이 커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보모들만의 특징인 교훈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과 순화된 표현 및 구연식 서술 방식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1941년 『아이생활』의 「유치원동화 특집」에서는 14편이나 발표되었으며, 좀 더 성장한 보모들의 창작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시된 장르명이 동화, 소설, 구연동화, 그림동화, 유년동화로 세분화되어 제시되었다. 1940년대 들어서면서 유년문학의 개념 및 장르 정립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에 맞춰 보모 작가들의 창작 수준도 점차 더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모 작품만의 특징인 교훈적인 메시지와 구연방식의 표현들이 동일하게 작품 속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동화뿐만 아니라 동요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동요곡집으로 발표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작품 속에서 시적 특성을 살린 문학성 있는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된 유치원 보모들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이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작가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일회성의 기획 특집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소개된 작품은 극히 일부이었을 것이며 그 외에 실제 유치원에서 읽혔던 보모들의 작품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각각의 편집 의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치원 보모들의 작품을 연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 연재된 작품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분명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모들의 창작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보모들과 더불어 유년문학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어린이』, 『신소년』, 『개벽』, 『소년』, 『아이생활』
뿌라운리, 『어린이 락원』, 이화보육학교, 1934.
차사백, 『보육일안』, 동광당서관, 1938.

2. 논문 및 단행본

교육학대사전편찬위원회, 『교육학대사전』, 교육과학사, 1979.
권혁래, 「근대 한국 전래동화집의 문예적 성격 고찰」, 『한국문학논총』 제76집, 한국문학회, 2017, 49-86면.
그림형제·김경연 역, 『그림 형제 민담집-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현암사, 2012.
김경희, 「심익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213-247면.
_____, 「김복진의 유성기 동화의 특징」, 『구비문학연구』 제31집, 구비문학연구회, 2010, 545-578면.
_____, 『심익린의 동화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6
김은천, 『『어린이』지 게재 전래동화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박영만 지음·권혁래 옮김, 『화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 보고사, 2013.
박인경, 「보육일안으로 살펴보는 유치원 담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2집,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8, 107-147면.
박혜리나, 『유치원유희창가연구』, 민속원, 2014.
심익린·최인학 변안, 『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
오세란, 『『어린이』지 번역동화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요시하라 사오리, 『방정환의 그림동화 수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2.
원종찬, 「한국 아동문학이 창조한 주인공」,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비, 2009.
_____, 『소년 6』 영인본, 역락, 2010.
이상금, 『한국 근대 유치원 교육사』, 이대 출판부, 1987.
정진현, 「1930년대 《동아일보》 유년(幼年)동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9집,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175-199면.
_____, 「아동문학의 장르 분화와 유년문학의 등장」, 『동화와 번역』 제34집, 건국대학교

-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17, 241-273면.
- _____, 「일제강점기 염근수 아동문학 활동 연구」, 『동화와 번역』 제36집,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 연구소, 2018, 303-335면.
- 정인섭a, 『색동회 어린이 運動史』, 학원사, 1975.
- 정인섭b, 『김복진 기억의 복각』, 경인문화사, 2014.
- 조선총독부 편·권력래 역, 『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 조은숙, 「유성기 음반에 담긴 옛이야기」, 『민족문화논총』 제49호, 민족문화연구원, 2008, 203-250면.
- 중앙대학교 80년사 편찬실무위원회, 『중앙대학교 80년사 1918-1998』,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8.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 역사, 2003.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4.

Abstract

Japanese Occupation a Nanny, Kindergartner and The Growth
of Early Childhood Literature

Park, In-Kyung

Since the 1920s before the concept of early childhood was established in children's literature, the kindergartens as educational institutes for young children have achieved the prosperous development. As there were not many early childhood literatures that could be read for young children at that time, the kindergartners might create literary works for young children.

As most of the released works are the one-time special works, it is very much limited to closely analyze the world of works by kindergartners. The published works by clearly revealing the status of kindergartner in newspaper or magazines include 「One-Person One-Episode Children's Story」 of 『The Chosun Ilbo』 in 1929, 「Special Kindergarten Children's Story」 of 『Boy』 in 1940, and 「Special Kindergarten Children's Story」 of 『Child Life』 in 1941. Th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First, as there were many works in the form of translation and reproduction that could be shown in the beginning stage of creating works, they were highly related to the existing works translated or reproduced by writers of children's

literature.

Second, on top of directly delivering didactic messages related to sympathy or filial love instead of expressive techniques with literary value, the ethnicity was also shown by using materials of traditional fairy tales.

Third, the cruel contents were purified by cognizing the subject of young children. For young children who could not read letters, the orally-narrated description method was used.

Kindergartners were many works in the form of translation and reproduction, created works, showed the kindergartners' efforts to establish the genre of early childhood literature by expressing each work into different names of genre. As time passed, the changed growth of kindergartners into writers of early childhood literature was verified.

■ Keywords: Kindergartner, Early Childhood Literature, Kindergartner-Writer Group

■ 논문접수일: 2019. 4. 30.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

